

보건교육사가 실시한 아토피캠프와 그 성과

최라현*, 남은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 연구배경 및 목적

2008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아토피성 질환 실태 및 역학조사에서 아토피 질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아토피피부염의 최근 증상의 유병률은 약 23.3%였다. 환경성 질환으로 인식된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하고, 보건교육사를 활용하여 이 질환을 개선하는 생활양식을 교육하며 이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질병예방 및 관리를 하고자 함이 이번 캠프 운영의 요지이다.

■ 연구방법

2009년 7월 24일부터 1박 2일간 2009년 아토피친환경체험승리캠프를 강원도 양구군에서 운영하였다. 대상은 서울특별시의 한 보건소에서 추천한 초등학교 학생 중 아토피성 질환을 앓고 있는 44명의 아동과 보호자 25명이었다. 프로그램 구성은 알레르기 피부시험, 아토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유기농 요리 만들기, 다슬기 잡기, 천문대 견학 등의 체험학습,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 설문지 작성 등이었다. 아토피 캠프 운영 계획은 보건교육사가 기획하였고, 운영 관계자 중 피부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팀이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 연구결과

보건교육사를 활용하여 아토피캠프를 기획하고 환아 및 가족들에게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을 교육시키고 식단 및 환경 변화 등을 통해 아토피피부염은 치료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했다. 생활 습관 개선 면에서는 물론 긍정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함양시켰다.

■ 결론 및 제언

보건교육사가 실시한 아토피성 질환의 질병관리 계획과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환경성 질환 관리 성과를 알 수 있었다. 향후 보건교육사 인력은 다양한 질병관리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